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11~6/1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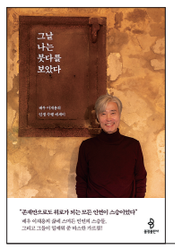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6	매일매일 채식밥상	홍승	담앤북스
2	정관스님 나의 음식	정관, 후남셀만	월북	7	뿌리를 담은 밥상	법송	도서출판 자자
3	생전예수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출판사	8	샐러드가 필요한 모든 순간 내맘의 드레싱이 빛나는 순간	지은경	레시피팩토리
4	아침을 담은 죽	법송	도서출판 자자	9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불광출판사
5	사찰 음식 이야기	묵신	백산	10	뇌과학자가 본 붓다의 마음	문일수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행복한 화엄경:시공을 너머핀 꽃	정엄 지음	리즈앤북	6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 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담마빠다(법구경)빠알리어직역	일아 옮김	불광출판사	7	여래장사상의 원전(학술총서77) 여래장경부증불감경승만경	이평개 역주강설	민족사
3	금강경역해:금강경산스끄리뜨원전 분석 및 주해	각묵	불광출판사	8	틱낫한 행복	틱낫한	불광출판사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도표로 읽는 경전입문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5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빨리어호흡관법경강의)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10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초기불전003) 대반열반경	각묵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연기를 연기하다

〈緣起〉 〈演技〉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

이재용 지음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배우 이재용의 인생 수행 에세이

방황하던 시절 만난 스승 인연

'존재의 와해' 겪고 불교 공부

"마음 깨닫는 수행은 '셀프 구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배우 이재용? 이름만 들으면 갸우뚱하겠지만 얼굴을 보면 단박에 알아챌 사람. 40년 넘게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가, 한때 출가를 권유받기도 한 '불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최근 에세이 〈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를 펴낸 배우 이재용 씨는 6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간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놓기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사진〉

불교와의 첫 인연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무 살부터 연극에 빠져들었으나 세상살이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실의와 낙담과 폭음으로 방황하던 그에게 한 선배가 조용한 암자를 소개했다. 스님과 단둘이 지내게 된 두 칸짜리 암자에서 그는 직접 장작을 패고 불을 때고 밥을 해 먹으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다.

어느 날, 한껏 낮은 자세로 밥상을 들고 가다 서까래에 머리를 들이받은 그에게 스님은 단호하게 소리쳤다. "아직 멀었다. 더 숙여라!" 그 순간 번뜩 깨달음이 왔다. "'존재의 와해'라 불러도 좋을 경험"이었다.

"그동안의 제 삶이 번갯불처럼 지나가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군요. 바로 그날입니다. 제가 붓다를 본 날이요."

그때 스님에게 '적정(寂靜)'이란 법명을 받고 지금껏 불교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참선, 위파사나, 만트라 명상 등을 두루 경험하며 "수행법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을 깊이 체감했다고 말한다.

그간 일본인 순사(SBS 드라마 '야인시대')나 조직 폭력배(영화 '친구') 같은 악역을 다수 맡다 보니, 배역에 깊이 몰입했다 빠져나오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터. 그는 "인물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분노와 슬픔, 억울함 같은 여러 감정에 공감하는 시점이 온다. 그런데 수행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대상화하면, 몰입 과정에서의 착각과 혼란이 하나의 '현상'임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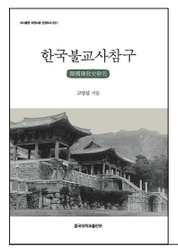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현실과 배역 사이의 혼란, 대중적 인기의 쇠락,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다른 배우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랐다.

"많은 배우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심지어 알코올 중독을 겪지만, 모두가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절한 현실도 못 됩니다. 그렇다면 '셀프 구원'이 답입니다. 인기나 부, 명예 같은 부질없는 것들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모든 고통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는다면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남은 생은 좀 더 명료하게 살면서,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함을 갚을 수 있는 여생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비빔 불교'와 '달임 불교'



한국불교사참구

고영섭 지음

동국대학교출판부

4만원

〈연구〉〈탐구〉〈궁구〉 이은 4부작

"불교사 화두 삼아 참선하듯 참구"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후 우리 선조들은 이 땅의 토양과 기후, 언어와 문화, 사유와 인식 속에서 불교를 발효하고 숙성해 '한국불교'를 형성했다. 이러한 한국불교는 곧 한국사 1700년 역사와 궤를 함께한다.

한국불교사학회장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한국불교는 인도의 소승·대승·금강승 불교와 중국의 13종파를 받아들여 물리적으로 종합한 후 '비빔의 불교'를 열었고, 화학적으로 삼투시켜 '달임의 불교'를 열었다. 그리고 그것을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인식틀로 삼아 왔다"고 평가한다.

고영섭 교수가 최근 펴낸 〈한국불교사참구〉는 전작 〈한국불교사연구〉, 〈한국불교사탐구〉, 〈한국불교사궁구〉에서 이어지는 4부작의 대단원이다. 한국사와 한국불교사를 관통하는 인물, 역사와 문화, 사상과 학파를 아우른 책으로, 제목은 "한국불교사를 화두로 삼아 참선하듯 참구해 펴낸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책은 저자의 한국사 시대구분법에 따라 사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시대의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사국시대-고구려·백제·신라·가야 불교'는 고대불교의 전래와 수용, 공인의 과정을 거쳐 토착화, 구심화되는 과정을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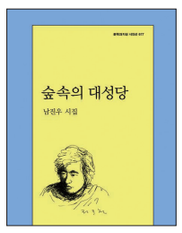
2부 '남북국시대-통일신라 대발해 불교'에서는 원측·원효·의상 스님의 불교사상을 조명한다.

3부에서는 고려시대 전·후기 불교를 △김제 모악산 귀신사의 역사와 인물 △〈삼국유사〉의 원효와 의상 등을, 4부에서는 조선시대 전·후기 불교를 △조선 세조의 오대산 상원과 중창과 거둥 관련 유적 등을 주제로 개괄한다.

5부에 '대한시대'에서는 근현대 선지식인 경허·한암·문성·청담·구산 스님을 키워드로 근현대 불교사를 살핀다.

새로 나온 시집

죽음의 그림자에 내린 언어의 닻



숲속의 대성당

남진우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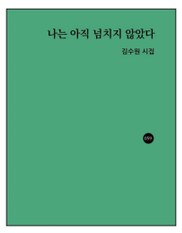
문학과지성사

1만2000원

"새가/어느새 한 마리 새로 피어난 새가/가볍게 날개를 펼치고 허공 위로 떠오른다/아무리 접어도 접히지 않는 새가 빛 속으로 멀어져 간다." -'새를 접다' 중에서

시인이자 평론가인 남진우의 일곱 번째 시집이다. 첫 시집에서 "오직 죽은 자만이 성스럽다"고 고백한 바 있는 시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을 떠올리며 "그가 설한 연기와 무아의 진리에 관한 위대한 말씀들을 사모하는 것만큼이나, 죽음에 임해 투철하게 육체적 괴로움을 겪어낸 그 장면의 진실성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종교를 넘나들며 천착해 온 '죽음'의 여정이 이번 시집에선 '생'의 의지로 전환된다.

존재의 경계에 있는 사물들에게



나는 아직 넘치지 않았다

김수원 시집

불교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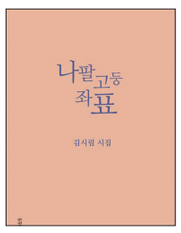
1만2000원

"거울 밖에 비가 오면 거울 속에도 비가 온다 / 거울 속에 버린 시가 궁금해서 / 내가 우산을 쓰고 거울 앞으로 다가가면 // 거울 속에서 우산만 걸어간다." -'볼록 거울 속의 시' 중에서

김수원 시인의 신작 〈나는 아직 넘치지 않았다〉는 존재의 경계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날 선 감각을 보여준다. 문학평론가 고명수 시인은 "김수원의 시는 인간의 숙명적 한계와 존재의 실상을 자각하고 그 현실을 견디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시인은 2017년 〈불교문예〉, 2019년 〈한국시조문학〉으로 등단해 현재 〈계간문예〉 이사를 맡고 있다.

작은 것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



나팔고둥 좌표

김시림 시집

도서출판 상상인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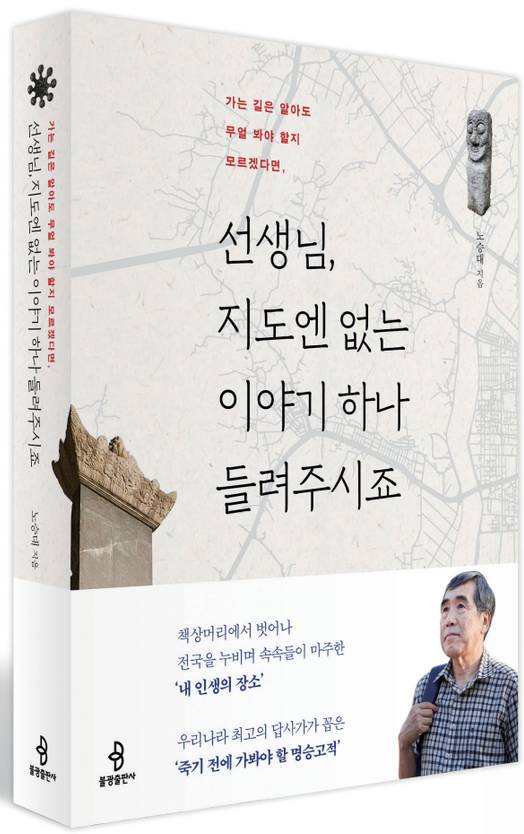
애써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아야만 발견할 수 있는 시가 있다. 시적 대상이 크지 않은 물상들, 생명들일 때 더욱 그러하다.

김시림 시인은 "작은 수족관" 속 "며칠 전 눈대중으로 좌표를 찍어 둔 자리보다 한 뼘쯤 옮겨 앉은 저 나팔고둥"에 시선을 두고, "본래 이 터의 관계자들"인 "강아지풀 나팔꽃 개망초 쇠비름"에 귀를 기울인다. 문학평론가 방민호 교수(서울대 국문과)는 "김시림 시인의 시들을 읽으며 교섭과 교감의 보람, 기쁨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평한다.

시인은 1991년 〈한국문학예술〉, 2019년 〈불교문예〉로 등단해 현재 〈불교문예〉 편집장을 맡고 있다.

가는 길은 알아도 무얼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선생님, 지도엔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



노승대 지음

520쪽 | 올컬러 | 32,000원

우리나라 최고의 답사가가 꼽은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명승고적'

"길을 걷다 멈춘 곳에 이야기가 있다"

책상머리에서 벗어나 전국을 누비며 마주한 '내 인생의 장소'

청룡열차보다 흥미진진하고, 유명 관광지보다 마음에 오래 남는 길 위의 박물관, 우리 땅 인문 여행 첫걸음!





노승대 | 1975년 입산해 광덕 스님을 은사로 모셨으며, 10년 뒤 하산했으나 그 길에서 찾았던 '우리 문화'에 대한 열정은 내려놓지 않았다. "책상머리에서 글 쓰지 마라." 하신 스승 조자용 관장님(에밀레박물관)의 당부에 따라 42년간 전국의 유적지를 직접 마주한 저자는 우리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공부하는 것을 금생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길 위에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